



독서동아리지원센터

2020 사회적 독서 콘퍼런스

코로나19 시대와 독서동아리, 함께 읽기의 방향

| 발표 자료집

11.26 (목)

2pm - 5pm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Book Culture Foundation

후원

서울책보고

14:00
~
15:10

1부 기조강연

환영사 및 인사말

사회 : 김은하(책과교육연구소 대표)

기조강연 1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사회적 독서, 학습동아리 그리고 나눔 2.0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조강연 2

미디어 생태계 변동의 시기, 삶을 위한 리터러시를 생각한다
김성우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강사)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저자

15:10
~
15:20

쉬는시간

15:20
~
16:50

2부 토론 및 질의

전체토론

토론자 : 유범상(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성우(서울대학교 강사)
변미아(독서동아리 길잡이)
이운영(인디고 서원 실장)
장은수(편집문화실험실 대표)

질의응답



2020 사회적 독서 콘퍼런스

코로나19 시대와 독서동아리, 함께 읽기의 방향




독서동아리지원센터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사회적 독서, 학습동아리 그리고 나눔 2.0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Book Culture Foundation

서울책보고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사회적 독서, 학습동아리 그리고 나눔 2.0

유범상(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히틀러의 개인 서재-독서와 공감은 좋은 것인가

히틀러는 전쟁중에도 책을 한권 이상 읽어야 잠을 들 정도로 독서광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장서는 약 1만 6300권이다. 이런 독서와 책에 대한 공감 때문에 히틀러는 악마가 되었다. 독일의 시민들도 히틀러에 공감했다. 그렇다면 독서와 공감은 좋은 것일까? 그의 독서와 공감을 추적해 보자.

히틀러를 정치로 이끈 책은 안톤 드렉슬러의 <나의 정치 인생>이다. 드렉슬러는 학력이 낮은 철도수리공에서 정치인이 되었다.¹⁾ 히틀러는 그의 삶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책의 저자가 중학교 중퇴인 자신처럼 학력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도 정치를 결심한다. 히틀러는 책의 내용에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나의 정치 인생>은 당시 독일인의 불행이 유대인들이 독일경제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면서 유대인에 대한 증오를 설파했다. 히틀러는 이 증오에 공감한다. 이후 히틀러가 줄을 치면서 열심히 읽었던 책은 모두 인종주의에 관련되어 있다:

“위대한 사상가들과 고전이 빠진 자리에 대신 들어간 책들, 히틀러가 진정으로 깊이 감동하며 탐독하고 영향을 받은 책들은 군사학에 관련된 백과사전과 싸구려 신비주의 서적들, 그리고 우생학과 인종주의에 관한 책들이었다. 매디슨 그랜트의 <위대한 인종의 쇠망>, 한스 쿤터의 <독일 민족의 인종적 유형론> 따위의 책들은 나치의 ‘빌딩 블록’이 되었다”(라이백, p.185)²⁾

히틀러의 독서와 공감은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마디로 편향된 독서와 편향된 정보에 대한 공감이 문제였다.

“히틀러는 독서를 사전에 이미 형성된 관념의 ‘모자이크’를 채우기 위해 ‘돌’을 모으는 과정에 비유했다. 그는 차례나 색인을 살펴본 다음에 해당 장(章)을 펼쳐서 ‘쓸 만한’ 정보를 조금씩 모았다. 때로는 결론부터 읽어서 무엇을 기대할지 사전에 판단했다”(라이백, p. 191)

1) https://dbr.donga.com/article/view/1305/article_no/1691

2) 티머시 W. 라이백. <히틀러의 비밀 서재: 어느 독서광의 기이한 자기개발>. 글항아리. 2020.

결론이 정해진 이처럼 편향된 독서를 통해 “히틀러는 1933년 1월 30일의 연설에서 독일인이 사슬에 묶여서 유대인에게 착취당하는 존재로 묘사했다”(브라이트하우프트. p. 242).³⁾ 그리고 그는 자신의 민족의 처지에 분노했다. 그는 “유대인들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어느 나라의 국경에도 얽매이지 않는 반면에 독일인들은 그들의 영토에서 ‘사슬에 묶인채’ 유대인들의 금융자본에 착취당하고 있다”면서 눈물을 흘렸다(브라이트하우프트. p. 287).

공감으로 푹푹 뭉친 히틀러와 히틀러의 시민들은 현대판 분서갱유를 단행했다. 베를린 분서(책을 불사름)로 불리는 이 사건은 1933년 나치당이 집권하자마자 히틀러와 괴벨스의 주도로 5월10일부터 4주 동안 히틀러의 입장과 다른 서적을 불태운다. 100여년 전에 하인리히 하이네가 “책을 불사르는 것은 오직 시작일 뿐이다. 결국 인간을 불태우게 된다”는 예언처럼, 히틀러와 그의 시민들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현대판 갱유(선비를 생매장함)를 단행했다.

두 공감, 공감편향과 사회적 공감

공감은 나쁜 것일까? 히틀러와 히틀러 시민들의 공감은 분명 나쁜 것이었다. 공감은 “함께 체험하는 것(co-experience)”이다. 이것은 “대개 상상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그의 반응을 공유하며 그의 피부 속으로 스며든다는 말이다”(브라이트하우프트. p. 16). “공감능력을 갖춘 존재는 다른 존재의 요구 사항을 인지하고 반응할 수 있다”(브라이트하우프트. p. 27). 이렇게 본다면 공감은 그 자체로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

문제는 무엇일까? 공감편향이 문제이다. 공감편향(Empathie-Bias)은 ‘공감의 선입견’, ‘감정이입충동’, ‘과잉된 공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공감은 자기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브라이트하우프트. pp. 94-98 참조). 자기상실은 “다른 사람이 자기화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 비해 더 우월하고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념으로서 다른 사람이 생겨나고 투사된다⁴⁾”(브라이트하우프트. p. 98). 이처럼 공감편향은 자신이 동의하는 것에만 공감한다. 그렇지 않은 것은 악한 것이 된다. 이것은 시민들을 소망적 사고와 안톤의 실명증으로 이끈다. “소망적 사고”란 어떤 것이 사실이기를 바라는 욕망(“소망”) 때문에 사실과 상관없이 그렇게 믿는 것을 말한다. 안톤의 실명증은 실명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보인다고 생각하는 희귀병이다. 이 환자는 보이지 않아 쓰러져도 자신이 실수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공감편향과 대비되는 공감이 사회적 공감이다. “사회적 공감은 세상을 보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자 틀이다. 사회적 공감은 어떤 능력들의 훈련과 관련이 있고 개인적 공감에 토대를 두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을 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시걸. p.

3) 프리츠 브라이트하우프트.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공감의 두 얼굴>. 소소의책. 2019.

4) “초인어로 보이는 영화 스타들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공감적인 자기 상실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자아 또는 ‘나’를 갖고 있는 자는 늘 다른 사람인 것이다”(브라이트하우프트. p. 98).

311).⁵⁾ 이때 사회적 공감은 늘 비판을 수반하고 있어야 한다. 비판이 없는 사회적 공감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악마로 묘사하고 이것을 시민들과 공감하고자 했다. 시민들은 사실을 따지지 않고 침묵하거나 히틀러에 공감했다. 프리모 레비는 이것을 ‘고의적인 태만함’이라고 표현한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양하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알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모른 척하고 싶었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으며, 질문한 사람에게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독일인들은 자신들의 무지를 획득하고 방어했다. 그런 무지가 나치즘에 동조하는 자신에 대한 충분한 변명이 되어주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입과 눈과 귀를 다문 채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환상을 만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자신은 자기 집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공범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레비. p. 276).⁶⁾

사회적 공감은 비판과 질문의 과정 속에서 생겨나야 한다. 히틀러의 시민들은 히틀러가 가르키는 달만 보았다. ‘달을 가르키면서 달을 보라는 놈’(달달놈)을 봐야 했다. 즉 권력을 보고, 달달놈의 공감편향이 사회화될 수 있는 당시의 독일 사회의 구조를 봐야 했다.

사회적 공감은 사회적인 것에 비판적으로 공감하는 것이다. 즉 “억압을 낳은 구체적인 상황”에 주목하고 그것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다(<페다고지>. p. 59).⁷⁾ 이처럼 사회적 공감은 세상읽기를 통해 형성된다.

상이한 독서, 개인적 독서와 사회적 독서

어떻게 공감편향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적 공감이 가능할까? 브라이트하우프트는 학습을 통해 공감편향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한다.

“공감은 오직 학습을 통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부분적인 공감 차단 메커니즘이나 기술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관점의 상실에 시달리며 구조적인 스톱홀름 증후군의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브라이트하우프트. pp. 98-99).

스톡홀름 증후군은 납치범과 같은 가해자에 공감하는 현상이다. 전후 독일은 공감편향을 벗어나는 교육론에 합의한다. 보이텔스바흐 합의(1976)는 세 가지 합의에 기반한다. 첫째 원칙은 강제성 금지로써 강압적인 주입식 교육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5) 엘리자베스 A. 시걸. <사회적 독서>. 생각이음.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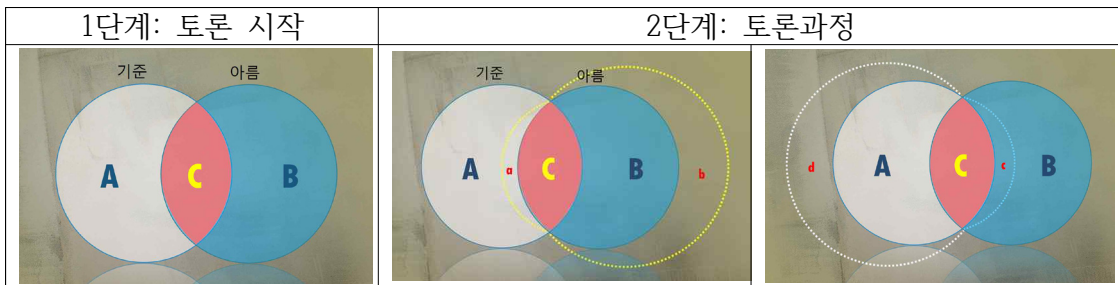
6) 프리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 돌베개. 2007.

7) 파울로 프레이리. <페다고지>. 그린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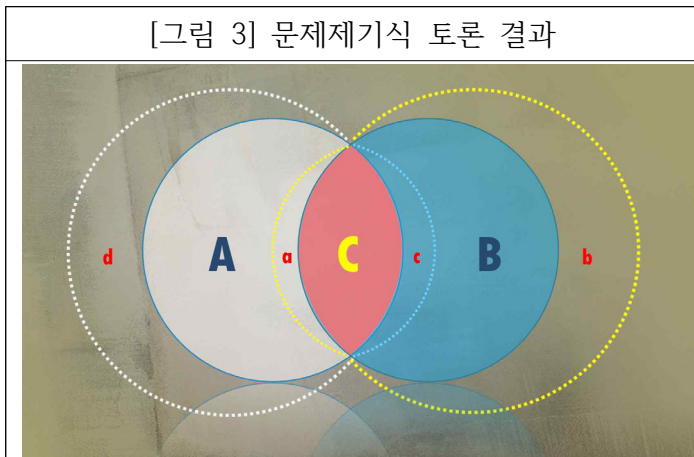
두 번째 원칙은 논쟁성 유지이다. 모든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자기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즉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의 원칙이다. 한마디로 이 합의는 모든 문제를 논쟁으로 드러내고 그 논쟁들 속에서 자신의 견해를 갖고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논쟁성을 통한 세상읽기의 사회적 독서의 방법론은 프레이리의 문제제기식 토론에서 발견된다. 프레이리는 <페다고지>에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따라서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파한다.

[그림 2] 문제제기식 학습



[그림 1]의 첫 번째 그림은 AC를 아는 기준과 BC를 아는 아름이 만난다. 먼저 두 번째 그림에서 보듯이 기준이 자신이 아는 a를 이야기하면, 아름이는 b만큼 지식이 늘어날 것이다. 즉 만나고 나서 ab만큼의 지식이 늘어난 것이다. [그림 1]의 세 번째 그림에서 이제는 아름이가 c만큼 말한다. 그러면 기준이 d만큼 새로운 지식이 생긴다.



[그림 3]에서는 대화과정에서 생긴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기준이는 처음에 AC를 알던 것에서 ACcd를, 아름이는 BC를 알던 것에서 BCab의 지식을 갖게 되었다.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토론하는 과정에서 듣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공감대가 처음에는 C였는데, aCc로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을 통해 상대방에 동의는 하지 못할지라도 인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상의 프레이리의 문제제기식 방식의 토론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독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독서를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는 점이다. [그림 3]에서처럼 최소한 기준이와 아름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대화한다. 둘째, 세상읽기 독서이다. 책에 대한 이야기에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해서 토론을 함으로써, 각자 자신을 둘러봄과 동시에 우리를 둘러싼 공동체를 이해한다. 프레이리는 글읽기에 선행해야 하는 것이 세상읽기라고 주장했다:

“세계 읽기는 항상 글 읽기에 선행한다. 그리고 글 읽기는 계속해서 세계 읽기를 내포한다. (중략) 단순히 세계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와 다시 쓰기, 다시 말해 글을 의식적이고 실천적인 활동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글 읽기에 선행한다. 내가 보기에 문해교육 과정의 중심에는 바로 이와 같은 역동적인 운동이 있다(프레이리. p. 7).”⁸⁾

이런 점에서 시민문해교육은 함께 책을 매개로 세상을 읽는 과정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공감을 지향하는 독서이다. 앞서 보았듯이 대화를 하면서 공감이 증가했다. 이것은 상대가 이해하는 세상 속으로 내가 더 들어간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이 증가할 것이다. 넷째, 이런 과정의 독서는 모두가 학생이고 모두가 선생이다. 즉 내가 말하면 나는 선생이 되고 나머지는 열심히 듣는 학생이다. 그런데 상대가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토론하는 동료가 된다. 따라서 개인적 독서는 개인적 공감으로 귀결되지만, 사회적 독서는 개인의 공감편향으로부터 사회적 공감으로 갈 개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프레이리는 토론하는 동료들과 함께 세상을 이룸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독서는 토론을 통해 세상읽기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을 하고, 이렇게 공감한 사람들이 함께 세상을 만드는 행위이다.

사회적 공감으로 향하는 사회적 독서가 진행되려면 참여자들은 솔직해야 한다. 사회적 독서는 상대방의 지식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과 세계관을 읽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솔직해야 하고, 솔직할 때 존중해야 한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나와 다룰 때 그것을 우열의 눈이 아니라 차이의 관점에서 인정해야 한다. 즉 동의가 아니라 인정이다. 이런 점에서 차이가 편안히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학습동아리, 민주주의와 사회적 독서의 공간

히틀러의 독서가 골방에서 이루어졌다. 반면, 사회적 독서는 광장에서 이루어진다. 이 광장의 가장 최소단위가 학습동아리이다. 학습동아리는 도처에 존재하는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이다. 이 광장에서 민주주의가 시작된다.

민주주의와 광장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책이 <작업장과 도서관>이다.⁹⁾ 책의 부제인, ‘스웨덴, 영국의 사회민주주의와 제3의 길’에서 보듯이 1970년대 말 이후 복지국가가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받았을 때 두 국가는 사회민주주의에서 제3의 길을 추구한다. 이때 영국은 신자유주의에 가깝게 다가섰다면, 스웨덴은 여전히 복지국가의 길을 유지한다. 두 국가 간의 차이가 무엇이였을까? 진보정당들 간의 노선의 차이에 있다.

8) 프레이리. 『문해교육: 파울로 프레이리의 글 읽기와 세계 읽기』. 학이시습. 2014.

9) 연뉘 안데르손. <도서관과 작업장: 스웨덴, 영국의 사회민주주의와 제3의 길>. 책세상. 2017.

즉 진보정당이었던 영국의 신노동당과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서로 다른 길을 간다. 영국의 신노동당은 빅토리아 시대처럼 세계의 작업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도서관을 강조했다:

“신노동당이 지식경제를 빅토리아 시대의 작업장과 공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야기했다면,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지식사회가 19세기말에 문자해독력을 확산시키고 노동운동의 중요한 토대 역할을 한 자기 교육운동의 논리적 연장이라고 이야기했다. 1990년대에 지방 전문대학이 설립된 것은 노동운동 초기에 학습 서클을 통해 글을 읽을 줄 알게 되고 정치적으로 각성한 노동계급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에 비견됐다. 공부모임은 지식사회를 위한 조직화의 모범으로 칭송받았다. 스웨덴에서 지식경제에 대한 묘사로서 대영제국의 작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공공도서관인 민중문고, 즉 이동식 도서관의 순회로 시작해 결국에는 각 마을의 중심기관으로 자리잡은 민중도서관들이었다”(안데르손. pp. 111-112).

이상에서 보듯이 “19세기 말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은 노동자교육운동과 함께 성장했다. 이 운동을 통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문자 해독 능력을 갖게 됐고 산업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비판적 시민으로 거듭났다. 이 운동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빈곤층이나 벽촌 주민에게 책 읽을 기회를 열어준 순회도서관이었다. 사회민주당은 지식정보화의 물결 속에 필요한 것이 이런 순회도서관 같은 노력이라고 보았다”(장석준. “해제”. 안데르손. p. 287). 두 정당 간의 상이한 태도는 지식정보사회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취한다:

“스웨덴의 구호를 인용하면, ‘지식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이를 더 많이 함께 나눈다.’ 지식경제를 묘사하는 당의 수사에 사용된 핵심비유는 도서관, 혹은 학습 씨클이었다. … 반면에 신노동당은 1990년대에, 지식경제가 영국이 전 세계의 전자 작업장으로 부흥할 기회라고 이야기했다. 신노동당에게 지식은 지식경제의 시장에서 교환·판매되는 경쟁적 상품이자 개인적 재화였다”(안데르손. pp. 14-15).

이처럼 영국이 “일하고 학습할 개인의 의무를 관리”하려고 했다면, 스웨덴은 “일하고 학습할 개인의 권리를 관리”하고자 했다(안데르손. p. 232). 이에 대해 저자 안데르손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자기발전의 권리와 계발의 의무는 같은 게 아니다. ‘책임 없이 권리 없다’와 ‘각자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서로 매우 다른 개혁 전략이다”(안데르손. p. 232).

일할 의무를 다했을 때 권리를 부여하겠다는 신노동당의 입장은 영국의 신노동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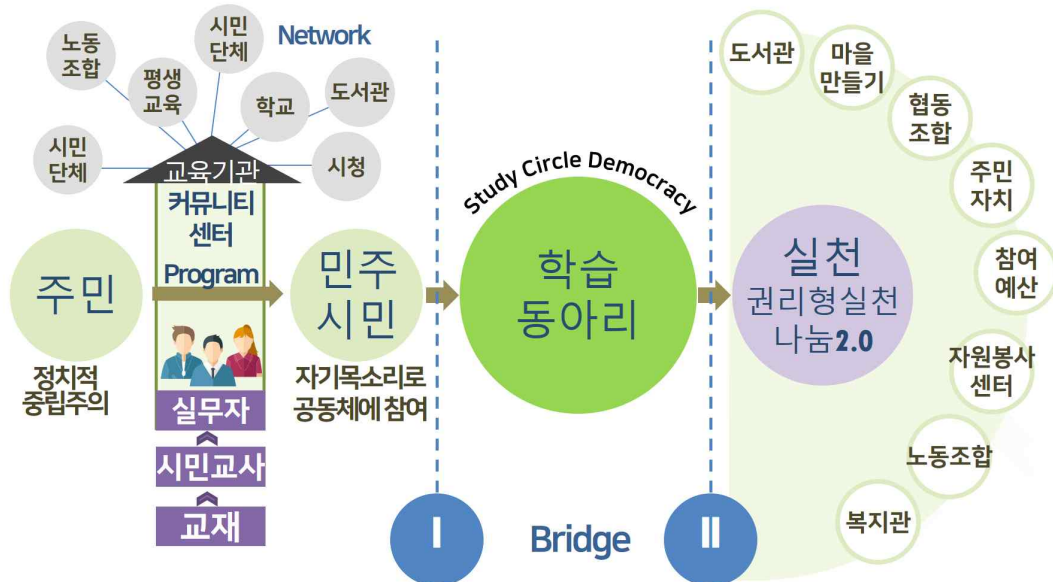
상 고든 브라운이 “변화가 없다면 사회보장도 없다”는 언급에서 볼 수 있다. 반면 스웨덴 사민당 지도부는 “사회보장 없이는 변화도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안데르손, p. 221):

“[영국의] 근로복지전략은 생산 참여에 따라 조건부로 권리를 인정하며, 여기에서 권리란 의무의 완수를 통해 획득하는 무엇이다. ... 반면 스웨덴의 생산주의는 사회적 권리 부여와 사회보장의 확대가 생산 참여의 필수 전제라는 사상에 바탕을 두었다.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일할 의무가 아니라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개인의 권리였다”(안데르손, p. 227).

이상에서 보듯이 1980년대 이후 신노동당은 빅토리아 시대의 세계의 공장이었던 영국으로 돌아가자면 작업장을 강조했다. 반면,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던 연대와 협동의 장소인 학습동아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처럼 스웨덴이 학습동아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이유는 신자유주의의 파고 앞에서도 사회적 독서의 광장을 살려냈고, 그곳에서 사회적 공감을 형성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독서의 실천, 나눔 2.0

[그림 4] 사회적 독서에서 나눔 2.0의 실천으로



민주시민은 자기목소리를 갖는 존재이다. [그림 4]에서 보듯이 교육과 토론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사회적 독서가 이루어진다. 사회적 독서는 주민을 민주시민으로 변모시킨다. 민주시민들은 학습동아리에 참여한다. 학습동아리는 토론하는 동료들이 만나 사

회적 독서를 하는 광장이다. 이 광장에서 형성된 사회적 공감은 더 나은 공동체에 대한 상상으로 이어진다. 즉 학습동아리에서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이 생겨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상은 일상, 즉 현실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공동체를 변화하게 만드는 실천이다.

전통적으로 나눔을 불쌍한 이웃을 돕는 것으로 배웠다. 이것을 나눔 1.0이라고 한다면, 나눔교육은 전통적인 의미의 친절한 이웃(friendly visitor)이 자선에 기반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교육을 의미한다. 불쌍한 사람들에게 갖는 개인적인 연민과 시혜의 실천에 대해 프레이리는 이것을 허구적 관용이라고 비판했다:

“피억압자의 약함을 존중해 억압자가 자신의 권력을 ‘완화’하려 하면, 그것은 대개 허구적 관용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 부당한 사회질서는 죽음, 좌절, 빈곤을 양분으로 삼는 ‘관용’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다. 그렇기에 허구적 관용을 베푸는 자는 그 원천에 조금만 위협이 가해져도 필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다”(〈페다고지〉, pp. 52-53).

이처럼 나눔 1.0은 문제의 원인이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다. 그래서 이 개인에게 시혜를 베풀면서 근면하고 독립적인 인간이 되길 희망한다.

불쌍한 사람은 생길 수밖에 없는가? 이처럼 우리가 질문을 달리해 볼 수 있다.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사회를 상상해 보자. 서유럽과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했다. 우리는 배부를 권리는 없어도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아플 때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으면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배우고 싶을 때 적어도 돈이 없어서 무지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런 사회에 대해 함께 상상하고, 만들어가는 실천을 할 때 이것 또한 나눔의 행위이다. 이 행위를 나눔 1.0과 대비하여 나눔 2.0이라고 하자. 나눔교육 2.0은 사회적 위협에 대해 시민들이 협동과 연대로써 공동으로 이 위협을 막으려는 민주시민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즉 자선을 넘어 시민들의 권리 혹은 민주주의와 인류애에 기반한 박애를 체험한 시민의 형성이 나눔교육 2.0의 목적이다.

[그림 5]에서 보듯이 그동안 나눔교육 1.0은 학교안의 청소년에 국한되었다면, 나눔교육 2.0은 청소년은 물론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시민들이 대상이다. 즉 시민들과 함께 나눔의 철학을 나누는 교육이다. 더 나아가 나눔교육 1.0이 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나눔교육 2.0은 배움과 실천을 연계하여 하나의 행위로 간주한다. 즉 나눔교육은 곧 나눔교육의 행위를 전제하고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점에서 나눔교육 1.0을 확장하여 나눔교육 2.0은 시민참여형 나눔교육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림 5] 나눔 1.0과 나눔 2.0



이상에서 보듯이 나눔교육 1.0은 한국전쟁 이후 보릿고개의 한국적 상황에서 불쌍한 사람들과 클라이언트의 긴급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었다. 이것은 먹고사는 문제에만 몰두해 있는 한국사회의 시민들에게 좋은 인성을 만들고 이웃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고 실천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사회적 위험은 개인을 넘어 사회로, 가족을 넘어 구조적인 문제를 담고 있다. 따라서 나눔교육은 개인적인 인성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시민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민주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나눔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육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나눔교육 2.0, 즉 시민참여형 나눔교육은 나눔교육 1.0을 계승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공감에 기반한 나눔 2.0의 실천은 정책으로 향한다:

“공공정책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선택이다. 이런 정책은 바뀔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역사에는 노예제 폐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된 투표권, 사회보장제도 시행,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동성결혼 합법화와 같은 사례가 있다. 이러한 주요 정책의 변화는 이런 변화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반영했다. 이것이 사회적 공감이다”(시걸, pp. 329-330).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적 독서는 사회적 공감을 만들고, 사회적 공감은 나눔 2.0을 실천하는 시민들에 의해 정책으로 연결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사회적 독서를 하는 시민은 정책하는 시민들이다. 이것은 공공정책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내 공간에서 나다운 실천, 나의 사회적 독서와 나눔 2.0

사회적 독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실천이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나눔 2.0의 실천이다. 이 실천의 내용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누구나 다 자기 공간에서 자기다운 실천을 하면 된다. 사회적 독서, 사회적 공감, 학습동아리, 나눔 2.0의 권리형 실천 등의 일련의 연결고리 속에서 내 공간에서 나다운 실천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첫째, 사단법인 마중물과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이다. 인천에 소재하고 있는 2019년 사단법인 마중물은 ‘마중물 세미나’라고 불리는 시민들의 학습에서 생겨났다. 학습과 토론을 위한 매학기 격주 토요일에 총 6시간 동안의 만남에서 참여한 시민들은 사단법인 ‘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을 위한 마중물’을 만들었다. 사단법인 마중물은 명칭 그대로 ‘시민교육’을 위해 산하에 교육기관으로 시민교육센터, 선배시민지원센터, 후배시민지원센터를 운영중이고, 사회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중물은 현재 마중물 세미나는 물론이고 ‘목요광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주 목요일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책, 영화, 정치이슈를 놓고 세상읽기를 진행한다. 최근에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마디(마중물미디어 센터)를 만들어 활동중이다.

사단법인 마중물은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2017년 팽목항을 다녀 오면서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협동조합 마중물문화광장은 마샘이라는 문화복합공간에서 서점, 카페, 갤러리, 공연장, 강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상시적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시민교육과 토론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저자와의 대화, 공연, 인형극, 토론회 등으로 시민들은 사회적 공감을 형성해 가고 있다. 한편, 교육, 정책, 문화 활동을 하는 마중물은 협동조합 마중물 문화광장이 출자하여 출판사 마북을 만들고 시민교육관련 책을 출판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마중물은 사회적 독서에서 출발하였다. 사단법인과 협동조합 마중물은 ‘학습동아리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전국에 학습동아리를 조직하고 있다. ‘북레터 상상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매달 최신의 책을 설명서와 함께 배달하고 있다. 이것은 학습동아리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

둘째, 교사들과 100시간 수업이다. 사단법인 마중물은 2019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초중고 학교 선생님들과 100시간 연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첫 번째, 교사들이? 둘째, 100시간이나?’ 학교선생님들이 100시간이나 모여 공부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30여명의 선생님들과 학습모임이 ‘마중물 플랫폼’에서 시작되었다.

100시간 중 50시간은 철학과 이론 교육, 50시간은 참가자들이 자신의 교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안을 발표하고 토론하는데 사용했다. 2020년 1월 드디어 100시간이 딱딱 채워졌다. 그리고 25명의 참여자들에게 11월 이 긴 여행의 선물이 도착했다. <민주주의자들의 교실-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민주주의자들의 교실-민주시민교육의 실천>(인천광역시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사아카데미. 마북. 2020)이다:

“책을 만드는 과정은 그 자체로 민주시민의 여정이었다. 50시간의 배움과 50시간의 교사 발표에 기초하여 자신의 경험, 개성, 고유성, 목소리를 글에 담아내려고 했다. 기적이었다. 함께 동일한 주제로 공부를 했을지라도 저자 3명만 되어도 일관성을 갖기 힘든데, 25명의 저자가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다르지만 하나의 목소리에 담는 것이 가능할까? 이 책은 민주시민으로 향하는 과정이 확보된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 과정 자체가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민주시민의 배움과 교육과정의 전형이었다”(〈민주주의자들의 교실-철학〉. pp. 9~10).¹⁰⁾

지나고 보니, 100시간 동안 형성되었던 광장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교실이었다. 이것이 교실인 이유는 학습, 소통, 공감, 변화, 공동성찰을 배우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값진 것은 이 과정이 토론하는 동료들을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점이다. 이 교실은 지속되고 있다. 2020년 현재 인권을 주제로 진행되고 있으며, ‘100시간교육 포럼’의 두 번째 프로젝트인 인권교육에 관한 책을 2021년에 낼 예정이다.

셋째, 선배시민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다. 노인은 돌봄의 대상이다. 빈곤독거노인은 도시락과 김치, 연탄재와 같은 물품으로 돌본다. 최근에 청바지를 입은 노인도 여전히 돌봄의 대상이다. 이들도 인문학, 여가관리, 건강관리, 죽음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돌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빈곤독거노인은 늙은이로 명명되고, 청바지를 입고 자기계발에 힘쓰는 노인을 성공한 노인이라고 하자. 이들은 다르지만, 둘 다 돌봄의 대상이다. 도시락으로 인문학으로 돌보는 내용이 다를 뿐이다.

그렇다면 돌보는 대상이 아닌 돌보는 주체로 노인의 존재를 상상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작한 발상에서 선배시민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이들은 시민이다. 시민은 시민인데, 연령상으로 선배이다. 따라서 선배시민(senior citizen)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선배시민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주체이다. 이들은 공동체의 변화, 즉 나눔 2.0에 관심을 갖고 동료 노인과 후배시민들에게 책임을 진다. 2010년부터 이 강의를 해 오던 중 2016-2017년 2년 동안 한국노인복지관협회와 함께 선배시민대학을 운영했다. 이 기간동안 사회적 독서와 학습동아리를 운영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2년동안 선배시민 자원봉사로 나눔 2.0실천 혹은 권리형 실천을 실시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예를 들어 바리스타를 배웠던 노인들이 대학교 앞에 가서 ‘후배시민들이여 우리가 응원할게’ 프래카드를 들고 청년들에게 커피나눔을 시작했다. 건강동아리를 만들어 개인 건강에 힘쓰던 노인들이 사회제육시설을 조사하고, 관리하기 시작했다. 러브호텔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관철시켰다. 복지관에서 강의가 끝나면 노인들이 가지 않고 책상정리를 함께 한다. ‘왜 그러세요?’라는 질문에 ‘내가 선배시민이잖아!’라는 대답을 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사회적 독서는 사회적 공감으로 사회적 공감은 정책활동이라는 사회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1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교사아카데미. 〈민주주의자들의 교실: 민주시민교육의 철학〉. 마북. 2020.

“안타깝게도, 정책결정자가 사회적 공감능력을 갖기를 기다리는 것은 요원해 보인다. 그 대신 사회적 공감을 지닌 시민들이 정책결정자가 다른 사람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도록 자신과 타집단을 대신하여 사회운동을 펼칠 수 있다”(시걸. p. 330).

올해 선배시민활동은 선배시민총회로 발전했다. 14개 지역의 선배시민단이 정책을 발의하여 12월에 중앙 총회를 개최한다. 선배시민교육과 실천을 하는 노인들은 ‘자신이 공동체를 위해 할 일이 많은 존재인 줄 몰랐다. 왜 이제야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는가’라고 말한다. 이를 보고 사회복지사들도 ‘이제야 존경할 어르신들이 생겼다’고 고백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적 독서

나중에 COVID-19(코로나19)로 명명된 2019년 12월에 출몰한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진자 6천만명(58,467,203명)에 사망자는 백 사십만명(1,385,973명)에 육박한다.¹¹⁾ 한국은 30,403명에 503명으로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방역을 하고 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 11. 21). 2020년 지구촌의 일상이 달라졌다. 코로나19와 함께 하는 뉴노멀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는 지구촌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다. 첫째, 왜 어떻게 생겨났을까? 둘째, 특정 개인들에게 왜 더 위험할까? 셋째,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코로나19는 이제 전염병의 조짐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월터스¹²⁾는 전염병을 에코데믹(Ecodemic)으로 정의하는데, 이것은 ‘생태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 지구적인 전염병’이라는 의미이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얻기 위해 자연과 더불어 동물을 착취했다. 15년 수명의 돼지는 겨우 서 있을 정도의 우리에게 갇혀 6개월이면 도살되고, 거대 농축산업은 닭을 A4용지보다 작은 면적에 세워놓고 달걀을 얻기 위해 밤새 불을 켜놓는다. 소는 양의 창자를 갈아 만든 사료를 먹는다. 이 모든 동물에게 어려서부터 항생제를 먹인다. 월터스는 ‘새로운 전염병 어떤 것이든 내게 가져와라. 인간이 일으킨 환경변화가 그 원인임을 입증하겠다’라면서 ‘바이러스가 인간세상으로 가기 위해 문을 거세게 두드리게 있다’고 주장한다(월터스. p. 11). 이런 점에서 코로나19의 속주는 통제되지 않은 자본주의인지 모른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시카고에서 흑인 인구는 1/3이지만 사망자의 72%가 이들이다. 이것은 이 지역에서 백인의 평균수명이 흑인보다 8.8년 긴 구조적·인종적 불평등이 반영된 결과이다(NYT. 2020. 4. 7).

올리히 백은 <위험사회>¹³⁾에서 “부는 상층에 축적되지만,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

11) <https://coronaboard.kr/> 2020년 11월 22일 검색

12) 마크 제롬 월터스. <에코데믹, 끝나지 않은 전염병>. 책세상. 2020.

부자는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자유를 사들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백, p. 75). 부자는 코로나19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자본축적의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 UBS은행은 코로나19 상황인 2020년 4월~7월 사이에 세계 억만장자들의 재산 총합이 27.5% 증가했는데, 이는 사상 최대치라고 증언했다.¹⁴⁾ 이런 맥락에서 올리히 벡은 위험은 계급적이라고 주장했다.

셋째,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까? 사회적 독서를 해야 한다. 사회적 독서는 코로나19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향해야 한다. 그리고 근대 공장식농축산업, 살림벌채, 화석연료 등 생태와 기후에 영향을 미쳐 온 돌진적 근대화에 대해 근본적인 성찰이 되어야 한다. 윌러스¹⁵⁾는 원헬스 개념을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자연, 동식물과 농업, 인간, 바이러스와 건강, 보건 인프라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다. 즉 동물, 자연, 인간 모두가 건강해야 한다.

시민정치는 특히 불평등에 맞서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위험은 인류를 향하지만, 실상 특정 계급에게 차별적이다. 바우만¹⁶⁾은 퓨즈에 주목한다. 전기회로가 과부하에 걸리는 순간 가장 먼저 퓨즈가 망가진다. 그런데 퓨즈가 끊어지면 회로 전체가 작동을 멈춘다(바우만, pp. 7-11 참조). 우리는 자주 ‘끊어지는 퓨즈 대신에 더 튼튼한 구리선을 대체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퓨즈가 구리선으로 대체되는 순간 퓨즈의 민감성을 잃어 버린다. 이런 경우 위험은 걸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퓨즈의 정치는 비정규직, 콜센터 노동자, 자영업자, 일용노동자 등에 주목해야 한다. 이들에게 무급휴가나 실직은 살인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설령 증상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자가격리를 결정하기 어렵다.

<사회적 공감>의 저자 시걸은 “빈곤은 사회적 공감의 시험대이다”라고 언급했다(시걸, p. 316).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독서의 주제는 더 본질적이고 더 복합적인 것이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사회적 독서와 학습동아리를 매개로 나눔 2.0의 실천을 모색할 때가 아닐까.

13) 올리히 벡. <위험사회>. 새물결. 1997.

14)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4460029>

15) 윌러스.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 너머북스. 2020.

16) 바우만. <부수적 피해>. 민음사. 2013.

2020
사회적 독서
콘퍼런스

코로나19 시대와 독서동아리, 함께 읽기의 방향



독서동아리지원센터

미디어 생태계 변동의 시기, 삶을 위한 리터러시를 생각한다

■ 김성우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강사



 문화체육관광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Book Culture Foundation

서울책보고

미디어 생태계 변동의 시기, 삶을 위한 리터러시를 생각한다

김성우 (서울대학교 강사)

혹자는 현재의 미디어 변동을 ‘문명사적 변환’이라 칭합니다. 구텐베르크 은하계 이후 수백 년간 지속되어 온 텍스트와 책 중심의 리터러시가 동영상과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는 종래에 널리 사용되던 정의 중 하나인 “다양한 맥락과 연관된 인쇄 및 필기 자료를 활용하여 정보를 찾아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계산하는 능력(UNESCO, 2004)”으로서의 리터러시가 영상과 디지털 플랫폼에 자리를 내줄 것이라는 조심스런 전망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텍스트는 과학과 기술, 문학과 철학, 공감과 상상력의 영역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영향이 확대될지는 모르지만 근대 이후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 온 텍스트의 중요성이 순식간에 줄어들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독서 생태계는 다른 매체와의 경쟁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의 설명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2020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9 국민 독서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성인의 종이책 연간 독서율은 52.1%, 독서량은 6.1권이었다.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7.8포인트, 2.2권이 줄어든 수치다. 종이책을 매일 읽는 비율은 성인이 2.3%, 초·중·고 학생은 15.4%로 나타났다. 가장 자주 이용하는 매체는 성인의 경우 인터넷신문, 학생은 웹툰으로, 각각 응답자의 27.9%, 36.6%를 차지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성인 응답자 다수가 ‘책 이외에 다른 콘텐츠를 이용하기 때문에’를 독서를 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29.1%)로 답했다는 점이다.¹⁾ 전통적인 리터러시 활동의 핵심을 이루는 책임기가 미디어의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성우, 2020)²⁾

그렇다면 미디어가 급격히 변동하는 시기 독서와 리터러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삶을 위한 리터러시를 위한 책임기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없겠지만, 다음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 현 시기 독서와 리터러시를 성찰하고 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1. 학생들의 유튜브와 책에 대한 메타포: 고교생들에게 책과 유튜브는 무엇인가?

아래는 제가 한 고등학교에서 한 ‘유튜브의 시대, 삶을 위한 리터러시’라는 강연에서 학생들에게 받은 유튜브와 책에 대한 메타포입니다. 학생들은 아래 예시문을 보고 즉석해서 자신만의 은유를 만들었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2) 김성우. (2020). ‘읽고 쓴다는 것’의 새로운 의미: 리터러시 생태계의 변동을 이해하기 위한 네 가지 관점. 여주세종문화재단 2020 한글날 학술대회. <한글, 문해력, 민주주의>.

◆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자유롭게 상상해 보세요. 골똥히 생각하기 보다는 떠오르는 대로 유튜브와 책읽기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표현하시면 됩니다.

책읽기는 나에게 000이다. 왜냐하면 _____ 이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나에게 000이다. 왜냐하면 _____ 이기 때문이다.

1) 책읽기는 초등학교이다. 옛날에는 좋아했지만 굳이 안 돌아가고 싶은 곳인데 책읽기도 옛날에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별로 재미없다.

유튜브는 삶의 낙이다. 왜냐하면 너무 재밌기 때문이다.

2) 책읽기는 나에게 밥이다. 항상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튜브 시청은 지옥이다.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다

3) 책읽기는 나에게 장기적인 즐거움이다. 처음에는 읽기 힘들지만 다 읽은 후에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나에게 단기적인 즐거움이다. 듣는 즉시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이다.

4) 책읽기는 나에게 휴식처이다.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서 쉼 수 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나에게 책이다. 왜냐하면 책처럼 새로운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5) 책읽기는 나에게 악몽이다. 왜냐하면 하기는 싫지만 현대사회가 나에게 요구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나에게 사탕이다. 왜냐하면 재미있지만 점점 나를 갇아 먹기 때문이다.

6) 책읽기는 나에게 수업이다. 중간에 집중을 안하면 놓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나에게 간식거리이다. 왜냐하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게 되기 때문이다.

7) 책읽기는 나에게 집밥이다 왜냐하면 오래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나에게 즉석식품이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영양가도 있으며 다시봐도 재밌기 때문이다.

8) 책읽기는 나에게 운동이다. 해야하는 것은 알지만 즐거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나에게 마약이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르고 끝없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9) 유튜브는 나에게 빈틈없는 삶을 채워주는 물이다. 남는 시간엔 대부분 유튜브를 보기 때문이다.

10) 유튜브는 나에게 '깨진 장독대'이다. 정신을 놓고 나에게 필요없는 내용을 볼 때는 깨진 부분으로 계속 시간과 의미가 빠져나가지만, 정신을 차리고 깨진 부분을 막고 분다면, 내 안을 채워주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메타포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묵직합니다. 리터러시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현재의 미디어 변화를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들의 리터러시가 잘 못되었다’고 쉽게 재단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리터러시를 이야기하는 우리 자신의 리터러시를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핵심 질문: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삶과 미디어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2. 책읽기의 풍경: 리터러시의 위기는 기쁨의 위기이다

고등학생 몇 명이 각자의 손에 책을 들고 서로를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야야 이 책 표지 봐바바. 환상이지? 책이 어떻게 이렇게 빠졌냐?”

“와 그림체 정말 좋다. 색감도 너무 예쁘고.”

“난 이 책 봤는데... 여기 줄친 이 문장 끝내주지 않니? 랩 같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런 단어를 쓰다니. 작가가 정말 미쳤어 미쳤어.”

“와 정말 최고의 메타포네. 나도 저렇게 쓰고 싶다.”

“소설 첫 문장 이렇게 시작하잖아? 근데 마지막에 또 이렇게 끝난다. 뭔가 신비롭게 연결된 느낌이지 않아?”

“이 작가는 대사치는 게 너무 생생해. 실제 대화를 녹취한 거 같다니까?”

“이거 읽고 나니까 이 작가 다른 작품들도 다 읽어보고 싶다. 같이 읽어볼 사람?”

학생들의 대화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게임보다 더 흥미로운 책 이야기, 상상이나 해봤을까요. 책을 가지고 이렇게 열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난생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제가 상상해 낸 장면이기 때문이다. 근데 또 이런 장면이 생기지 말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어떡하면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이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책은 어떻게 서로에게 배울 수 있을까요?”

책읽기의 위기는 기쁨의 위기일지 모릅니다. 삶에서 출발해서 삶으로 돌아가는,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즐거움의 독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우리 사회의 독서문화가 학생들의 미디어 생활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요? 유튜브가 왜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이 떠오릅니다.

“유튜브는 자유로워요. 재미있는데, 자유롭잖아요.”

핵심 질문: 우리는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로부터, 특히 유튜브로부터 독서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3. 어머니의 말, “우리 이야기잖아.”: 관계를 구축하는 리터러시, 리터러시를 만드는 관계

“문해력에서 문이란 누군가와 소통하기 위해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관련 논의들에서는 관계 혹은 관계성이라는 것이 거세된 채, 내가 혹은 상대가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텍스트’, ‘너-텍스트’는 보는데 ‘나와 너’, 궁극적으로 ‘현재의 맥락에서 텍스트를 공유하고 있는 나와 너’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가 겪은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 잡지에서 청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주제가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말’이었는데, 그때 쓴 글이 제가 5년여 동안 어머니와 나는 대화를 엮어 《어머니와 나》(김성우, 2018)라는 책을 냈을 때의 이야기예요. 공부 때문에 타지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돌아와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됐어요. 그때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할 만한 대화를 녹취하기 시작했고 이게 5년여 쌓이니 꽤 두툼해졌죠. 평범한 일상의 대화들이었지만 대화를 기록하면서 리터러시에서 관계라는 측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나누고 이해한다는 게 단지 언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거죠.

그 책이 나온 다음에 어머니를 만나서 밥을 같이 먹고 지하철역에서 헤어지면서 책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문자메시지가 왔어요. “성우야, 책을 다 읽었다.”라고요. 책을 드린 지 4시간이 채 안 되었는데, 지하철 승강장 벤치에 앉아서 다 읽으셨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판형도 작고 쪽수가 많지 않은 책이지만 한 권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서너 시간 동안 집중해서 책 한 권을 읽을 만한 능력이 어머니한테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라 성경을 읽긴 하시지만 문해에 익숙하신 분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서너 시간 만에 책 한 권을 다 읽으신 거예요. “어떻게 다 읽으셨어요?”라고 물었더니 “우리 이야기잖아.”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 어머니 얘기를 왜 하나면, 어머니는 성경을 여러 번 읽으셨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회의 기준에서 봤을 때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한자리에 서 책 한 권을 다 읽어내신 거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자기 삶의 이야기였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과 유리된 글은 누구도 쉽게 읽을 수가 없거든요. 제게 법학자가 쓴 논문을 주고 읽으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할 것이고, 못 읽어내는 부분도 많을 거예요. 텍스트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난이도를 가지고 있고, 훈련을 받으면 모두가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삶과 권력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어떤 텍스트로 평가를 하느냐는 권력의 문제예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그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 삶의 텍스트를 써내고, 읽어내고, 평가받을 수 있는 권력이 없는 거예요.”³⁾

핵심 질문: 우리의 리터러시 활동은 어떤 관계를 만들고 어떤 권력을 생산합니까? 우리의 리터러시가 ‘메인스트림’에 매여있지는 않습니까?

3) 김성우, 엄기호(2020).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따비). 46-47

4. “문해력 떨어지는 사람들”이 문제?: ‘완벽히 다른 맥락을 구축하는 시대’의 사회적 독서의 책무는 무엇인가?

2년 쯤 전이었습니다. 강의 시간이 빠듯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보통 택시를 타면 기사님께서 “어디 가세요.” 묻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날의 대화는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택시에 오르자마자 기사님께서 말을 건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네? 뭘...”

“북한군 월급, 그거 대한민국이 주는 거예요. 국민 세금으로.”

“네?? 설마요. ㅎ”

“어 이 참 모르시는구만. 북한군 병사들 농협 통장 하나씩 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꽂아주는 거라니깐요.”

“아닐 것 같은데요? ㅎㅎ”

“어 이 사람이 뉴스도 안보나. 세상 물정 모르네.”

“어디서 보셨는데요?”

“그거 유튜브 찾아봐요. 다 나오니깐.”

“네. 알겠습니다. (정색) OO 가주세요.”

“...”

대화를 나누고 거울로 슬쩍 살피니 60대 중반 쯤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공격'에 기분이 상했지만 마음 한 끝이 아려왔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그치지 않을까요. 그는 저에게 한심하기 그지없는 인간이 되었고, 저는 그에게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천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흔히 소통의 실패의 이유를 말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찾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 소통의 '위기'는 텍스트에 대한 이해부족이라기 보다는 서로 다른 맥락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지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비해 우리는 자신의 맥락을 구축할 수 있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원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성향에 맞는 채널들만 구독합니다. 점점 좋은 책을 골고루 읽을만한 여유는 없어집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동일한 맥락을 구축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치고 비난하는 형국은 극복되어야만 합니다. '바벨탑'이 아닌 '다리'로서의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핵심 질문: 거의 완벽히 '부족화된' 맥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독서가 필요할까요? 가족은, 지역사회는, 학교는, 직장은, 소셜 네트워크는, 출판계는, 독서지원 단체는, 리터러시 실천가와 비평가들은 어떤 독서문화를 만들어가야 할까요?

5. 맺으며: 삶을 위한 리터러시를 위하여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의 리터러시 교육과 실천, 독서운동의 방향이 네 가지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텍스트 리터러시 중심에서 생애사 주기에 따른 멀티리터러시의 확장 and 발달로의 이행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되, 시험과 평가, 실적 위주의 독서가 아니라 기쁨과 재미, 성장을 도모하는 독서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독서와 디지털 매체를 연결하고 다양한 미디어들이 상호 교섭, 침투할 수 있는 전략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리터러시를 특정 세대의 문제로 보는 관점에서 전 연령대와 사회 계층 간의 상호 소통과 협력의 문제로 보는 관점으로의 이행입니다. 리터러시는 젊은 층의 문제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전사회적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 해독 중심의 리터러시 활동에서 관계와 맥락에 대한 민감성을 키우고 타자의 삶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는 리터러시 활동으로의 이행입니다. 텍스트는 언제나 컨텍스트 하에서 작동된다는 것, 주체들의 관계가 달라지면 컨텍스트와 텍스트가 맺는 관계 또한 달라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독서활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주체의 역량으로서의 리터러시라는 개인주의적 담론에서 배움과 성장의 조건 및 사회적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리터러시라는 공공성 담론으로의 이행이 절실합니다. 문해력을 급진적으로 사회화하는 다양한 담론적 실천이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서 우리는 '사회적 독서'에, '삶을 위한 리터러시'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토론 및 질의

쉬는시간 김은하(책과교육연구소대표)

토론자 유범상(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김성우(서울대학교 강사)

변미아(독서동아리 길잡이)

이윤영(인디고 서원 실장)

장은수(편집문화실험실 대표)

1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독서 생활의 차이점은?

2부 토론 및 질의

김은하 |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시대, 독서동아리의 함께 읽기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코로나 이전으로 잠깐만 타임머신을 타고 가볼까요? 너무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어떤 독서동아리 모임을 해보셨는지요?

이윤영 | 저희는 부산에서 인디고 서원이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디고 서원은 매주 청소년, 어린이들이 한 권 이상 책을 읽고 와서 글을 쓰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청년, 성인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디고 서원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나오는 책 중에 많은 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책을 선정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거의 매일 독서토론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은수 | 저는 편집자 출신이라,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게 항상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굉장히 많은 신간들을 다 검토해서 그 중에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고 남들하고 나눌 만한 것들을 따로 선별하고요. 회사를 다닐 때는 경쟁 도서가 될 만한 책도 뽑아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왜 독자들의 반응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이런 게 일상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서 독서토론을 따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웃음)

김은하 | 지난 2월부터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개인적인 독서 생활을 생각해봤을 때 변화가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 읽는 장소나 시간대의 변화, 아니면 읽는 방법의 변화라던가, 어떤 책, 어떤 장르를 더 읽게 되거나 하는 개인적인 읽기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유범상 | 저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코로나19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을 많이 찾게 됐습니다. 『에코데믹, 끝나지 않는 전염병』(마크 제롬 월터스 지음)이라는 책은 전염병을 생태병이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책들은 바이러스 같은 것이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워낙에 자연을 공격했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시민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책을 많이 찾게 됐습니다. 코로나19가 오면서 제가 찾는 책의 종류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페스트』(알베르 카뮈 지음)였거든요. 『페스트』는 고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현상을 해석하는 데 어떤 지혜를 줍니다. 특히 맨 마지막에 다들 이걸 신이 우리에게 주신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도지사도 조용히 처리하자 했을 때, 시민들이 자원하여 모임을 만드는 내용 등,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을 많이 찾았습니다.

장은수

굳이 따지자면 저는 지하철에서 책을 많이 읽거든요. 제가 독서 강의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건 '무조건 책을 갖고 다녀라. 이게 독서의 출발점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무슨 책을 읽느냐보다 어떻게 얼마나 잘 읽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독서는 습관이다. 저는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하철을 탈 일이 줄어들어가지고... (웃음) 대중교통을 타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줄었어요. 가령 강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되니까 지하철 독서가 '방콕' 독서로 바뀐 것이 저한테는 많은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윤영

저희가 좀 많이 느끼는 건 코로나19가 새로운 현실이긴 한데, 그전에도 있었던 일들의 연장선이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 가지 생태 환경 문제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큰 시대, 규모의 사회를 살고 있었다는 것이 온몸으로 체감이 되고, 우리가 얼마나 연결이 되어 있는가도 동시에 느끼게 되면서 모든 책 읽기가 매우 현실적으로 읽힌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네의 일기』(안네 프랑크 지음)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갇혀 사는 사람이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자유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페스트』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가장 먼저 찾아 읽은 게 『눈먼 자들의 도시』(주제 사라마구 지음)였어요. 제일 많이 읽힌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소설에서 '한 명의 눈뜬 자가 어떻게 세상을 깨어나게 할 것인가'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살아남는 것이 어떤 방식이어야 될까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들을 가지고 책을 읽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은하 | 관련 책들을 굉장히 실감나게 읽었다는 게 공통적인 것 같아요. 판타지물과 좀비물이 이렇게 현실적인 리얼리즘이 될 줄 몰랐다는. 어쩌면 연결고리가 훨씬 많은 책 읽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혼자 읽기를 넘어서 코로나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읽기 모임, 독서동아리 모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지, 또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변미아 선생님은 관악구에서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독서모임을 해보셨는데, 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변미아 | 일단 코로나19 이후 지역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웬만하면 자제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만나야 제맛이다, 이렇게 말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불안한 거예요. 이런 약간의 불안 때문에 만나서도 깊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온라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적응을 못하겠고요. 초반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임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어떤 매체를 사용하는냐에 따라 모임 형태도 달라지고, 책 읽는 주제도 좀 달라졌습니다.

김은하 | 예를 들어주시면요?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톡 동아리도 있고 줌 동아리도 있고, 네이버 밴드 동아리도 있습니다만, 혹시 매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나요?

변미아 |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남기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동아리는 밴드를 많이 이용하고, 얼굴을 봐야 맞다 하는 분들은 줌 화상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는 형태로는 낭독이 많아졌어요. 흩어져서 읽고 만나왔던 것들이, 이제는 책을 같이 읽는 형태인 낭독이 많아졌습니다.

김은하 | 혹시 목소리가 굉장히 그리워졌기 때문일까요?

변미아 | 그리고 에세이가 유행이기도 하고, 읽는 팀도 많아졌고요, 또 하나는 희곡을 읽는 팀이 많아졌어요. 낭독의 영향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았다면 지금은 책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책을 더 많이 읽게 됐다고 합니다.

3 코로나 전/후의 독서 모임 변화, 코로나로 인해 잃은 것과 얻은 것은?

2부 토론 및 질의

김은하

다음 이야기 골장 넘어가보면요. 코로나 이전의 독서모임과 이후의 독서모임을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존재를 하는지, 전과 비교해서 만약에 플러스/마이너스 정산을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잃게 된 것은 무엇이고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건 무엇이고 반대로 얻게 된 건 무엇인지 궁금해요. 독서동아리가 아니더라도 유범상, 김성우 선생님은 강의를 다 온라인으로 하시고 이번에 인디고 서원의 정세청 세 같은 행사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다양한 방식의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학습 하는 모임에서 우리가 더 얻게 된 것? 혹은 잃게 된 것? 이런 것을 한번 얘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성우

저는 독서동아리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시기의 가장 큰 어려움은 대면적인 접촉이 없어졌다는 것, 즉 다시 말하면 현장성이라고 하는 게 탈각됐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줌(zoom)을 통해서 얼굴을 보더라도 화면 속에서 보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디지털 신호를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람을 만날 때 하는 기본적인 사회적인 유대나 어떤 사회적 묶임,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선생님들과 눈을 마주치면 탄짓을 하실 수 없잖아요. (웃음) 제가 눈을 마주치고 있는데 무시하고 갑자기 탄짓을 하거나 전화를 받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즉 교사와 학생들과 관계가 예전에는 사회적인 문제로 공간적인 현장성으로 묶여 있었다면 지금은 그것이 거의 탈각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카메라를 보는 척하면서 카톡을 하는지 게임을 하는지 심지어는 인강을 듣는지 제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독서와는 조금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교실에서 책을 매개로 무언가 활동을 할 때 현장성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은, 사실 이걸 정답을 저도 찾고 있는 문제인데, 흔히 지금 우리가 뉴노멀이라는 신조어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상성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 신조어에 대해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말씀해주셨듯이 생태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누적되어 지금 폭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마치 기존에는 문제가 없던 것처럼 얘기하고 새로운 사회질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라고 하는 건 이전의 세계에 대한 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교실이라는 공간이 독서나 책 읽기와 토론이라는 것의 의미를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듭니다. 따라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하려고 하는 건 (학생들과 원래부터 많이 했던 활동이긴 한데) 학생들의 쪽글을 받아서 수업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조금씩 계속 일종의 중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학생이 없이 어떤 학생의 이야기든지 나름대로의 포인트를 잡습니다. 보통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의 쪽글을 매 시간 받는데, 2~30명의 쪽글을 읽고 요점이 되는 것을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온라인 화면에 띄워서 얘기를 합니다.

‘읽기 자료를 읽고 그냥 얘기를 해봐’가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일종의 큐레이션을 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모두와 공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직도 그 잃어버린 현장성을 어떻게 복원하고 더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김은하

코로나 전에는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읽는다고, 아이들 스스로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는 ‘시간이 넘치는데 왜 안 되지? 공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누군가 옆에 읽는 사람이 있고, 권하는 사람이 있고, 물성으로서의 책이 있는 공간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보다 고민을 덜 했구나’를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범상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전과의 차이.

유범상

저는 방송통신대학교에 있잖아요. 방송통신대학교는 TV도 가지고 있고, 온라인 시스템들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저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우리 학교는 온라인 대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우리 학교가 오프라인 대학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강의를 찍은 다음에 강의를 학생들이 봐요. 그걸 보고 나서 모여서 스터디를 해요.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출석 수업이라고 해서 교수들이 와서 출석 수업을 해요. 출석 수업 끝나고 스터디 끝난 다음에 오프라인 사지선다형 시험을 봐요. 학생들 입장에서 사지선다형은 주관이 개입이 안 되는 거니까 학생들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저희 학교가 졸업률이 20%가 안 돼요.)라도 엄청나게 오프라인에서 학습 동아리도 하고 오프라인 출석 수업도 했는데 이번에 오프라인 시험이 없어졌어요. 전부 다 페이퍼로 제출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을 만나면 “교수님 정말 강의 잘 들었는데 정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새 학생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실물이 훨씬 나운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음)

강의를 옛날보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주제만 듣고 페이퍼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뭘 깨달았냐면 위드 콘택트(with contact)화하지 않는 언택트는 아닌 거구나. 항상 언택트는 위드 콘택트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콘택트가 사라져버리니까, 언택트도 좋은 효과들을 낼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아, 우리 학교는 위드 콘택트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가 유지됐었던 거다.

요새 21개의 단체를 지원하는 전국 규모의 프로젝트를 하는데 코로나가 오게 되니까 21개 단체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물러날 때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이게 안 물러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권역을 나눴어요. 4개씩 권역을 나누는 다음에 4~6개 단체를 (오프라인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21개 전체는 어떻게 만났느냐? 줌으로 만나는 거예요. 위드 콘택트를 하니까 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위드 콘택트 없이 21개 단체가 만나서 얘기하자? 얘기가 안 났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언택트가 좋다고 생각해요. 온라인이 굉장히 좋은 측면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위드 콘택트가 없는 언택트가 얼마나 위험한 지 깨닫게 되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콘택트, 위드 콘택트를 확보할 것인가. 소규모로 쪼개고 전체적인 것들은 온라인 시스템들을 활용하는 것, 소규모로 오늘은 A, B로 만났는데 내일은 C, D를 합쳐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한 번에 만날 것을 여러 개로 쪼개서 만나니까 제가 굉장히... (웃음)

이운영

저희도 인디고 서원 내부에서 하는 독서동아리가 있고요. 저희가 학교에 나가서 강의하거나 학생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못 읽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았어요, 코로나 초기에.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시작하기 전에는 아이가 시간이 많아지니까 책을 읽어오더라고요.

책을 못 읽어오던 아이들이 책을 읽고 생기가 돌고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돌려준 것이 있다. 그것은 아이들의 생기인 거죠. 저희가 학교를 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학생들이 정말 무기력하고 정말 생기를 잃은, 삶의 의지를 잃은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찾고 학교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면서 좀 행복해했습니다. 물론 지속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어떤 자유를 누리고 싶은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찾을 어떤 자기실현적인 힘은 없는 거니까요. 그런 힘을 갖추기에는 온라인 수업이 적합하지 않고요. 온라인 수업은 정보 전달에는 탁월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공감능력이 전혀 키워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봐서는 아이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사실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아이들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힘들고 격차는 더 벌어졌고 더 잘하는 아이들은 더 잘하게 됐고 못하는 아이들은 아예 관심이 없고. 어떤 상황들을 보았을 때 단순히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시간을 뺐다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문제라기보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겪었던 문제가 무엇이었나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변미아

잃은 것은 사람. 얻은 것도 사람. 독서동아리들이 초기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으면서 인원수가 많이 떨어져나갔어요. 적응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리더들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지, 기술적인 부분도 알아야 되고 줌을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상황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인원은 계속 줄고, 그렇지 않아도 소수인데 더 줄어들고. 대신에 또 사랑을 얻었다고 표현한 것은 그 덕분에 관계는 짙어졌다. 함께 살아남았기 때문에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저는 잃은 것과 얻은 것이 사람입니다.

김은하

저는 독서동아리 워크숍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돌잡이 아기가 있는 어떤 분이 “올해는 망했다 내 인생. 집에서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온라인의 상황이 열리면서 독서동아리를 참여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독서동아리를 줌으로 할 수 있고 갈 수 없었던 온갖 도서관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니깐 다 들을 수 있어서 공간적으로 확장된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또 한편으로는 김성우 선생님 혹은 유범상 선생님 이야기 중에 모두가 학생이고 모두가 교사가 되는 경험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아요. 성인들 독서동아리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으면 저 뒤쪽에 고등학교 딸이나 초등학교 아들이 “엄마! 이거 이렇게 놀러야 돼. 저렇게 놀러야 돼. 여기 보고 말하면 안 돼.”하고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매체에서 훨씬 더 능숙한 친구들이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게 되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장은수

선생님도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생전 처음으로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를 써봤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진짜 충격적 경험이었어요. 제 얼굴을 화면으로 내보내다니...(웃음) 그런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강의나 대화라고 하는 게 맥락 즉 콘텍스트를 가지고 그때 그때 강의 내용도 바꾸고 디테일을 달리하고 이러면서 서로 소위 맞춰가는 ‘케미’가 있는데 그 ‘케미’를 맞춰가는 방법을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거의 알 수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강의 자료를 완전히 어쩔 수 없이 다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화면은 대부분 들으시는 분들이 휴대폰이나 모니터로 보는데 글자가 깨알 같으면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테니까, 이제 굉장히 단순화한 파워포인트,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한 줄 이런 거로 가능하면 바꾸려고 애를 썼는데 쉽진 않더라고요. 쉽진 않았는데 어쨌든 그렇게 강의 자료를 전부 다 바꿔내고 이런 지속적 노력 없이는 상대방하고 대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토론식이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강의라고 하는 형태는 좀 그렇고요. 유범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 강의-언컨택트(컨택트리스)에 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와 주기도 해야 되고요. 지식은 전달하고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지식에서 느낀 문제들을 교사와 컨택트하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저희는 그냥 옛날 하던 그 강의를 온라인으로 하고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니까 도저히 이게 수업이 될 수 없습니다. 내년쯤 되면 이와 관련한 연구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학력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아주 심해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정보격차를 점점 더 키워가는 비극적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도 기본 답론이 ‘언컨택트에 적응해가지고 잘 먹고 잘사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잘사는 사람은 더 소수고 정해져 있다는 거죠. 플랫폼 기업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만 먹고 살고 나머지는 다 부스러기 직업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인데 그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까봐 굉장히 염려하고 있고요. 전혀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성우

장은수 선생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방식이 전통적인 오프라인 교육을 온라인에 얹어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간성이라는 게 바뀌고 관계성이 바뀌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오프라인에서는 모르면 옆에 친구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맞아? 할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모르는 것을 누군가에게 서로 기댈 수 있다는 게 오프라인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데 이게 없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전통적인 평가 항목 같은 건 거의 그대로 존재합니다.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평가할 것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학교 가는 날은 평가하는 날. 체크하는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즉 1교시, 2교시, 3교시라는 것, 대학에서 학점이 갖고 있는 근대적인 체제가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작동하는 체제인데, 지금 그게 그대로 작동하길 바라는 게 맞는가? 그리고 그것을 플랫폼만 바꾸어 미래 교육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는가? 저는 그 명명 자체에 굉장히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하

교육 이야기로 이렇게 넘어갔는데 여기 이제 참여자들은 그냥 시민, 성인 학습자. '나는 평가 안 받는데? A+ 받으려고 독서동아리 하는 것 아닌데?'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논의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필요한 논의입니다. (시청자분들 중) 선생님, 학부모님들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이 논의는 진짜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가 반드시 다뤄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범상

저희 <사단법인 마중물>에서는 매학기 6시간짜리의 6~8개의 강의로 시민들이랑 세미나를 해요. 2시간 토론, 2시간 강의, 2시간 뒤풀이를 11년째 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그것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매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시민들과 매주 목요일마다 토론하고 정치 이슈 토론하고, 저자와의 대화도 하는 등 상당히 많은 모임이 있는데 이게 다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는 운영이 안 되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미디어센터 마디>라는 걸 만들었어요. 마디마디 연결을 해보자 해서 마디인데 어떻게 하기 시작했으면 저자와의 대화를 저자와 참석자 7~10명으로 진행합니다. 이후에는 똑같이 이루어져요. 7명이 토론을 하고 그것을 유튜브 중계로 보는 사람들은 댓글을 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소규모로 하면서도 온라인의 힘을 이용해서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것들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런 식으로 고민하며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지 않고도, 만나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하게 할까. <독톡>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책을 읽어줬던 모임이거든요. 이분들이 인형극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디>가 짝기 시작했어요. 저희들 안에서 콘텐츠 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만남의 변화도 있고요. <마중물>은 큰 협동조합이고 또 제법 역사가 있는데 일반 시민단체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공적인 차원의 지원들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각자도생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읽는사회문화재단의 사회적 독서가 그런 것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사회적 독서가 가능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할 것이냐. 전과 같은 책 또는 공간 지원을 넘어서 콘텐츠 제작이라던가, 오늘과 같은 행사도 지원을 받아 가능하듯이 이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고민들을 한다면 어떤 부분은 빠르게 회복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코로나 시대에 주목하는 위기 및 함께 읽기가 위기에 도움이 되는 방법

2부 토론 및 질의

김은하

다음 이야기는 좀 핵심적인 질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서 다양한 위기들이 얘기되는 지금 이미 그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런 위기들 중에서 하나를 잡는다면 어떤 위기에 더 개인적으로 주목하시는지?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읽기와 독서동아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위기의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분씩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변미아

저는 잘 몰랐었는데, 제가 불안해하더라고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못 만나니까 불안해하는 심리가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카톡에 답이 없어도 안 불안했는데, 이제 답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소통을 안 하고 있는 느낌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나서 얘기하니까 그 부분을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함께 읽기를 더 많이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룹콜도 해보고 줌으로도 해보고 밴드로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만들어봤어요. ‘길잡이’니까 그런 걸 미리 해봐야겠어서 했지만, 저는 이 불안함이 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나이가 나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을을 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진 듯해요. (웃음) 그래서 서로 잘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있지만 아주 적은 사람이라도, 세 명이라도 같이 만나서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독서가 함께 나누는 자리에 굉장히 중개 역할을 잘해주잖아요. 사담이 아니라, 책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니까요.

성인들, 그 중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립도가 더 심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육아에서 오는 스트레스, 예전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나름 시간을 가졌는데, 종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독서동아리 활동을 못하고 다른 만남을 잘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커요. 함께 나누지 못하는 스트레스를 그나마 온라인으로 함께 읽기를 하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건 그나마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김은하

코로나 상황은 생존을 위해서는 고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대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 고립과 연대의 딜레마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데 고립에서 오는 굉장히 많은 불안감과 식구들과 아이들, 더 많은 사람이 집에 있지만 더 힘들고 불안하고 고립되는 것들을 해결하는 데 함께 읽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윤영

저희 <인디고 서원>에서 지난 4월에 『공부는 정의로 나아가는 문이다』(인디고 서원 지음)라는 책을 냈습니다.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을 위하여’는 부제를 가진 책인데 가장 중요한 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저도 그랬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도, 지금도 그러는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기를 사랑하기가 혹은 자기 삶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한 현실 속에 있죠.

남의 시선을 맞추고 점수를 맞추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직장 가서 연봉을 많이 벌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 결국 그 행복이란 것이 굉장히 뒤에 밀려 있고 그래서 영원히 행복할 수 없게 되죠. 사회와 공생하고 있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회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한 장치를 내가 마련해야 하고,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무시당한다는 굉장한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윤영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사실 코로나를 통해서 보고 있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모두 같이 안전하지 않으면 절대 혼자 살아남을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을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라면 이제 더 이상 공부가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이나 돈을 벌기 위한 어떤 방법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어떤 힘을 만드는 것이 공부여야 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교육에 대한 논의가 그냥 단순히 정시를 강화한다, 약화한다, 온라인 교육을 한다, 안 한다는 문제라기보다는 도대체 공부를 통해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자 하는가? 공부를 통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체크하는 수치인데요,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중 사망자는 30대 이하 0명이거든요. 단 한 명도 죽지 않았고, 이는 80일 동안이나 개학을 안 하는 선택들, 그런 선택들로 아이들을 지켜낸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자살로는 매년, 올해 낸 자료로 따지면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 827명이 자살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고 그 수치의 절반 이상의 이유가 학업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코로나 방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입시 제도의 문제, 경쟁의 문제이고, 당장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하

우리가 이런 위기 속에서 철학적인 재정의 문제, 교육의 문제, ‘학교가 무엇이여야 하나’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이 이번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학력주의적인 담론이 우리 사회에 훨씬 많다는 것, “그래서 수능은 어떻게 되나요? 며칠 미뤄야 되나요?” 이런 논의만이 많다는 게 불만스럽기도 하죠. 장은수 선생님은 어떤 위기에 주목하고 계시나요?

장은수

올해 제가 제일 강의를 많이 한 주제는 ‘감염병과 문학’이에요. 왜냐면 이 감염병이라고 하는 팬데믹이 한 번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경험한 게 한 번이지 전 세계적 팬데믹은 인류사와 나란히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이디푸스 왕』(소포클레스 지음), 『데카메론』(조반니 보카치오 지음),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감염병을 다루고 있고요. 그 많은 팬데믹 속에서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지 못한 문명들은 결국 전부 몰락했습니다. 어떤 문명이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팬데믹이 온다는 것 자체보다, 팬데믹 이후에 인간을 어떻게 재정리하고, 인간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인간을 넘어서 생명을 어떻게 정의하고 다시 설계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지금. 이게 결국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령 중세 때 가지고 있었던 중세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데카메론』이란 책이 나왔고요. 그 책이 만들어낸 세계관이 한 500년 동안 지구를 이렇게 휩쓸고 있다가 지금 이제 그 인간의 정의, 거기에 나오는 욕망하고 탐욕스럽고 뭔가 순간순간 재치로 자기를 풀어나가는 이런 인간들이 다시 위기에 처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 너머의 것까지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생태 문제. 소위 인류세의 다음 문명.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를 요구받고 있거든요. 그러한 어떤 생각하기를 요구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답들이 이미 몇 백 년 전부터 문학에서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장은수

인간이 결국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의 자기 이야기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 이야기를 바꾸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바꾸는 게 왜 어렵냐면 감각의 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느끼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플로베르가 이야기 했듯이 문학은 감정 교육 아니겠습니까? 감각을 재설계하는 교육. 제가 독서동아리에서 갈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장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논픽션 독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내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자연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구 전체와 어떻게 다시 관계를 맺을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걸 정말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문학을 많이 읽는 것 말고는 답이 별로 없어 보인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눈 먼 자들의 도시』도 얘기하셨는데, 제가 요새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권하고 저도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 독서동아리에서 꼭 그 작품은 읽고 토론해보시면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유범상

예전에 제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인문학은 누구의 편인가」 이런 제목인데, 이게 무슨 말이나 하면,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가다 갑자기 멈춰 선다는 거예요. 왜 멈춰서나?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을 까봐. 영혼을 기다려서 위로하는 게 힐링의 인문학이거든요. 제 딸이 고3일 때 “힘들지? 금방 끝날 거야. 아빠도 고3이 금방 지나갔어.”라고 했는데 그다음 날 아침에 “빨리 학교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필링의 인문학』을 썼어요.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가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에는 백퍼센트 눈에는 눈가리개가 있고, 귀에는 함성을 못 듣게 하려고 귀마개가 있어요. 영어로 ‘벗기다’는 필링(peeling)이거든요. 두 번째 인디언은 눈가리개를 벗기다가 지친 내용을 보지 말고 우리를 지치게 만든 본질을 보라. 본질을 보려면 모여서 토론해야 해요.

<마중물>에서 책 읽는 원칙은 그거거든요. ‘말리진 않겠지만 절대 책을 읽어오지 마라. 하지만 책은 사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책을 읽어오라고 하면 책을 읽은 사람만 얘기해요. 저자만 얘기하고. 목적은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책을 매개로 해서 나와 공동체를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습동아리는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얘기고 책이 아니라 세상 읽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오게 되니까 다들 각자 어떻게 되냐면 힐링의 인문학으로. 교양이라든가 자기계발로 다 흩어졌어요. 말하는 기회도 사라졌고요.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도 듭니다.

인문학도 어떤 인문학이나, 세상 읽기의 인문학이 되려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얘기 할 때는 생각한 다음에 말하지 말고, 말하면서 생각하라고 합니다. 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네 몸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 세상들을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지금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가 많은 정보를 주고 많은 시간을 주면 더 깊게 독서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힐링이 되고 고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끄집어내고 어떻게 하면 책을 매개로 해서 이야기를 하게 할 것이나 그런 것들이 저의 핵심적인 문제고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다른 선생님께서 컨택트리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람이 사람과 만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됩니다. 대면, 비대면. 그런데 사실은 장소성이나 현장성이 없어진다는 것은 사람과 물건의 관계가 바뀐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한 교실에 있으면 '교과서 57페이지 펴' 그러면 동시에 57페이지를 펴서 보죠. 예를 들어 제가 음악 선생님이면 한 공간에 모여서 '악보 세 번째 마디부터 불러보자' 하면 동시에 같이 부르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실은 무엇을 말하냐면 공간과의 관계, 물건과의 관계, 책과의 관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이 혹은 미관이 바뀌는 거죠. 옛날에 교실에서 했던 어떤 활동들에 대해서 더 이상 가능하다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저의 가장 큰 문제의식이 무엇이나면 과연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의 교육, 교육 현장이나 다양한 평생교육 등에서 코로나가 끝났을 때 과거의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냐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건과 책과 공간과 다양한 미디어와 맺는 관계가 2, 3년 동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나서 교실로 들어왔을 때 바뀐 몸의 친구들을 대하는 교사들이나 독서 지도 같은 것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까 이윤영 실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정말 공감하는데 미디어의 문제나 플랫폼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요. 이 사회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느냐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저는 그때 거의 재앙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K자 모양으로 잘하는 축은 잘하고, 못하는 친구들은 못하고. 그 친구들이 교실로 왔을 때 회복되지 않고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인간의 몸과 공간과 물건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천착을 하고 독서나 책 읽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사회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가치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하

마지막으로 토론자분들께 하나씩 여쭙보고 싶은 것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함께 읽기 좋은 책 한 권을 혹시 추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책이 어떤 책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변미아

그룹콜로 희곡을 읽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희곡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상태에서 모여 같이 처음 읽는 거예요. 아까 공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인물에 대한 부분 등에서 서로 뭔가 느껴지는 공감대가 생겨요. 그래서 희곡집을 읽는 재미가 매우 좋더라고요. 최근에 읽고 있는 것 중에 『뒤렌마트 희곡선』(프리드리히 뒤렌마트 지음)이 있어요. ‘노부인의 방문’이라는 희곡이 있는데, 그걸 읽는데 너무 재밌어서... 내용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저 변미아를 믿고 (웃음). 동아리원들과 함께 희곡을 읽어보는 재미를 느끼시면 좋겠어요. ‘애한테 이런 표현 능력이 있었어? 말만 잘하는 게 아니었네.’ 이럴 수도 있고 ‘어머, 애는 말을 잘 못했는데 읽을 때 느낌이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동아리원들 간의 끈끈함을 지닐 수 있게 하는 이벤트성 책 읽기로 희곡 낭독을 권해드립니다.

이윤영

수만 권의 책이 떠오르는데 마음 같으면 저희가 쓴 책을 꼭 좀 읽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부는 정의로 나아가는 문이다』라는 책도 있고요. 그 책에는 80권의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영화도 같이 소개되어 있어서 참고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보다는 「인디고잉」이라는 잡지를 계간으로 내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나에 대한 글쓰기, 세상을 향해 던지는 질문들, 그런 걸 아이들이 직접 쓰고 있는 잡지입니다. 그 잡지도 특히 도서관에 많이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콘퍼런스에 참여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일반 성인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한 권의 책을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존 버거라는 영국 작가가 쓴 『A가 X에게』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저는 소설을 굉장히 잘 못 읽습니다. 두꺼운 사회과학 서적은 아주 잘 읽는데 문학은 잘 못 읽는 사람이라서요. 문학의 필요성은 세월이 조금씩 흘러 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지만 손에 잡고 단숨에 읽었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지금과 상황이 다르지만 A라는 사람과 X라는 연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교도소에 있어서 서로를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고받는 편지로 된 소설인데요. 아주 큰 대의를 꿈꾸는 남자와 너무나 사랑이 넘치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과연 대의로만 살 수 있는가. 혹은 인간이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가. 두 가지 모두를 아주 균형 잡히게 볼 수 있는 좋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들었던 멋진 말이 있는데 호주의 환경 운동가이자 배우이자 감독인 데이먼 가류가 영화 <2040>이라는 걸 만들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현실에 기반을 둔 꿈꾸기’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는 보통 현실을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또는 너무 끔찍하다 보니 외면하고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꿈만 꾸면 안 된다는 거죠. 꿈만 꾸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좌절하게 되는가, 참 많이 보잖아요. 어른들 중에 젊었을 때 너무나 꿈을 꿔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참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요. 두 가지 균형. 현실을 보니 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넘어선 이상적인 비전이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꿈도 꾸고 현실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두 가지 균형을 아주 사랑스러운 연인의 편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소설을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장은수

최근에 코로나 관련 책이 몇 권이 나왔나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한국 출판의 응전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제목이나 주제로 들어간 책이 현재 나와 있는 게 500권 정도 나왔습니다. 2월부터 현재까지 한 500권 나왔는데요, 소설에는 '코로나' 이런 거 안 들어가잖아요. 소설 빼고 한 500권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을 필요하면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거꾸로 말하면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책들을 관련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코데믹』이나 이런 책도 관련해서 나와 있지만 저는 항상 문학을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데카메론』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재에 집중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미래를 보면서 자꾸 미래를 착취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문제를 자꾸 뒤로 떠넘기고 앞에 저 먼 미래에 누군가 해결해줄 거야.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희망을 몸속에 품는 것과 이 희망을 미래로 계속 뒤로 미루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피렌체를 덮친 흑사병은 어마어마한 재앙이었습니다. 피렌체 시민 절반 정도가 죽었어요. 대재앙이죠. 그런 대재앙 속에서 죽음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끄집어내느냐. 생명력을 끄집어내느냐. 이런 문제에 대답을 해요. 지금 이 순간에 가지고 있는 당신 내부에 있는 에로스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때 에로스는 꼭 사랑은 아니고 생명력입니다. 분출하는 생명력을 놓지 말고 살아가면 당장 생긴 문제들을 내가 바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기지를 가지고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지혜를 가지고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삶의 문학,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그거를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잘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결국 코로나라는 게 지금 나의 쾌락을 위해서 숲을 건드려서 만들어진, 자연을 건드려서 만들어진 재앙이라는 게 거의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나의 쾌락을 어떻게 좀 양보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문학 작품을 읽으며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범상

저는 백그라운드가 정치학자예요. 사회정책학을 했고, 박사논문을 노동에 대해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관점에서 책을 보는데 이번에 코로나19가 왔었을 때 시카고의 흑인이 30%인데 사망자의 70%가 흑인이래요. 왜 그러냐면 시카고에 백인의 평균 수명보다 흑인의 평균 수명이 8.8년 짧대요. 불평등이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흑인들한테 '광장에 와라, 개성을 이야기해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차이라는 것이 계급적인 면모일 수 있는 거예요. 동등한 개인들이 있을 때 가능한 얘기기 때문에 어찌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근대 부르주아적인 용어일 수 있다, 부르주아적인 용어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차이의 조건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흑인들은 화를 낼 거예요.

유범상

오프라인, 온라인 있잖아요. 부자는 계속 오프라인을 해요. 예를 들면 섬도 하나 사고 엄청난 파티도 하고, 수업도 개인 강의 써서 오프라인으로 다 해요. 오프라인, 온라인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거기서 한 단계 내려온 사람들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사회적 공감으로 만들어내지 않고, 또한 사회적 독서를 이런 문제를 주제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사회적 독서의 맥락에서 또는 세상 읽기에서의 우리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정책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위기가 올 때마다 불평등이 항상 심각해졌어요. 이번에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최근에 4개월인가 6개월 만에 재산의 40%가 증가를 했대요. 불평등은 더더욱 심각해지고요. ‘부는 상층에 축적되고 위험은 하층에 축적된다. 위험은 민주적이지 않고 계급적이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읽었으면 하는 세 권의 책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아빠의 아빠가 됐다』(조기현 지음). 『아빠의 아빠가 됐다』의 저자는 20살에 40대 아빠가 치매가 오는 겁니다. 이 양반은 열심히 아빠를 돌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다 효자네 효자라 그래요. 저자는 ‘난 효자가 아니라 시민이고 싶다.’ 라고 합니다. 효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돌봄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면 그 가족한테 개인한테, 시민이고 싶다는 건 책임이 한 사회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 『임계장 이야기』(조정진 지음)라고 있어요. 임시 계약직 노인장. 정년퇴직을 한 이 양반이 임시계약직 가서 ‘고다자’라는 얘기를 해요. 고다자가 뭐지?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고. 이게 고다자예요. 노인 노동들, 퇴직 이후에 그런 분들.

세 번째가 『배달의 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박정훈 지음)라는 책인데요. 배달의 민족은 절대 배달하지 않아요. 앱인 거예요. 앱에다가 신청을 하면 음식점은 또다시 대행 배달앱에, 대행업체에 전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실은 모르잖아요.

근데 무서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음식점이 오토바이 갖다 놓고 공간을 놓고 라이더를 시켰어요. 이 사람한테 뭘 줬어요? 일이 없어도 월급을 줬는데 지금은 공유경제란 이름으로 라이더가 오토바이 가지고 개인 사업자가 돼서 앱에 등록해요. 4대 보험도 없고 산재도 안 되고 온통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은 갈수록 교묘하게 이 기술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데 그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차이를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고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히틀러의 시민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힐링 도서를 열심히 읽고 있는 나는 어쩌면 현실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적으로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논쟁성을 가르치는 수업, 그런 맥락도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차이가 늘어나는 것들이 뭔지에 대해 끊임없이 차이를 드러내는 광장에 자기를 노출해보고 더 근본적으로 사회 전체가 차이가 나타나는 게 허용되고 용인되는 그런 광장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우

저는 좀 결이 다른 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친구들과 함께 읽은 책이기도 하고요. 『생각을 빼앗긴 세계』라는 책인데 <뉴리퍼블릭>이라는 미국의 잡지가 있는데 편집장을 했던 프랭클린 포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지점을 다루고 있어요. 거대 IT 기업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는가에 대해 단순히 조심하자가 아니라 미국이란 사회가 어떻게 형성돼 왔고 그것이 IT 기업의 철학과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책을 매개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꼭 읽어야 될 책을 저는 의외로 거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보통 유튜브를 본다거나 하면 소비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유튜브를 읽어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소셜미디어를 읽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 들어가는 어떤 근본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감을 잡게 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반에서 앞으로의 책 읽기에 더하여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 읽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타자의 관점, 다른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것, 유튜브 어떤 채널을 즐겁게 본다면 단순히 이게 재밌네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이런 식의 언어를 쓸까? 왜 이런 식으로 구성할까? 이런 식으로 자막을 달까? 그리고 거기에 와서 답글 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그것이 정말 괜찮은 것일까? 내가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면 어떨까? 등등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플랫폼을 읽고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를 좀 더 비판적으로 독해할 수 있는 교육과 활동들이 정말로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독서와 그런 것들을 연관해서 흔히 말하는 멀티리터러시 혹은 다중 문해력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읽기의 범위를 넓히고,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미디어 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를 읽을 수 있도록 독서계가 오히려 리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은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독서동아리를 하면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냥 곁에서 숨만 쉬고 있다는 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인지. (웃음) 이렇게 다정하게 있는 거, 친밀하게 있는 거 혹은 뽀뽀하게 있는 거, 어색하게 있고, 같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새롭게 생각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처음 이렇게 시도해 본 온라인 사회적 콘퍼런스 어떠셨는지요?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어요. 3시간 동안 <2020 사회적 독서 콘퍼런스>를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연사분들, 랜선에서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또 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조강연자분들의 강연 영상 및 본 자료집에는 기재되지 않은 콘퍼런스 참여자분들의 질의응답은 <독서동아리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3NR9JB>)

참여자들의 실시간 댓글 참여



독서학습 동아리가 학교 교육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의 사유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해요.
(김*현).

『도서관과 작업장』 책을 언급해 주셨네요. 우리나라 도서관에 시민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공부방으로 있는 우리나라 도서관들을 바꿀 시민들의 요구와 행동을 기대합니다. (이*훈)

기대됩니다. 사회적 공감,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성*희)

책읽기는 건전한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늘 충전이 되거든요. 내 생각이 길러지는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유튜브는 새로운 세계(?)인 것 같아요. 기존에 알던 것도 영상으로 보니까. 새롭게 보일 때도 있고요 (서*주)

정말 유익한 강연이네요. 잘 듣고 있어요. (문자 생태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되네요.)(이*경)

시대적 문해력으로 요구하는 '맥락'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독해'가 중요하다는 말씀에 매우 공감하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중점을 둔 독서교육이 이뤄지려면 어떤 방식으로 독서활동을 해야 할까요? (전*경)

학교에서 학생들의 독서에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하는 책읽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연습하는 책읽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서*숙)

그런 의미에서 독서동아리도... 누가 한 명이 가르치거나 그러면 재미없는 것 같아요! 서로 돌아가며 운영자 역할을 맡고 서로 회의해서 규칙을 정하고! 이래야 저도 더 재밌더라고요! (서*주)

학교에서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성인들도 리터러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문*임)

코로나 시대 줌으로 릴레이 낭독회를 해보았고요, 독서동아리에서 책 따라 해보기 실천 해보았습니다. 가령 100개의 물건으로 살아보기, 비건으로 살아보기, 달리기에 대한 책이면 달리기를 한 달 동안 해보면서 몸이 변화되는 것 등.... (윤*옥)

영상에 대한 생각들, 책에 대한 생각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빠지지 않도록 사회적 독서를 할 수 있도록 해야겠네요. ^^ (이*희)

전 연령층 관계와 소통, 협업 매우 공감됩니다. 날로 새롭게 변화는 IT 환경과 다양한 욕구의 문화 접근이 어려운 여건이신 분들에게는 소통의 부재나 타자의 관점에서 배려되는 부분으로 깊고 넓은 사고의 장으로 확장될 것 같습니다.(이*화)

『페스트』로 읽고 토론했어요. 앞으로도 팬데믹 상황은 계속되겠지만, 각자 그 순간을 열심히 살아내며 함께 연대한다면 힘든 지금의 시간들을 이겨 낼 수 있다는 가르침이 감동이었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 막연히 불안만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배*경)

코로나로 인해 독서동아리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줌화상회의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관계의 소중함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자유롭게 얼굴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일상의 소소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네요. (임*희)

온라인 독서모임 덕분에 해외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과 함께 독서모임을 이어갈 수 있게 된 장점도 있어요. 역시 대면 독서모임이 좋긴 하지만요. (노*정)

코로나로 인해 도서관에서 낭독모임이 어려웠는데 그룹콜을 해보니 역시 가능하며 낭독에 더 집중이 되어 나름 즐거운 모임입니다. 그동안 소리 내어 낭독하는 힘이 그룹콜에서도 배가 됩니다. (현*복)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동전의 양면처럼 일장일단이 있어요. ‘코로나블루’ 속에서도 장점을 찾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필요성을 느낍니다. (심*도)

소득의 격차에 따라 지식과 교육의 빈부격차도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언택트 시대에 이 격차가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효과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주)

코로나 때문에 여가생활도 쉽지 않은데 책은 정말 좋은 여가활동 같아요. 오늘 컨퍼런스도 너무 좋네요. (김*현)

학교가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 사유하고 토론하는 광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서 우열을 나누는 전쟁터 같은 교육 말고 각자가 가진 가능성을 끌어줄 수 있는 광장으로서의 학교·교육을 꿈꿉니다 ~~!! (김*현)

공교육의 변화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체계가 변화되는 두려움에 선불리 손대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시의 대중화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도)

공감은 같은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는 말에 공감이 됩니다. (김*영)





독서동아리지원센터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40, 2층(동숭동, 일석기념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Webpage:<http://www.readinggroup.or.kr>
E-mail:readinggroup@daum.net